지역 소식통

고창 복분자주 미주 시장 보랏빛으로 물들이다

고창 복분자주가 미주 지역에서 보랏빛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고창군이 20일 관내 복분자주 제조업체인 국순당고창명주(대표 김영동)가 미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품목은 국순당고창명주의 '명작 복분자(375ml)'로 급속냉동으로 신선도를 유지한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를 사용해 신선하고 깊은 복분자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인공 색소, 보존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지닌 제품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물량은 7만달러분(1억원 상당)이 선적됐으며, 미주 현지 마트,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김영동 대표는 "복분자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고창 복분자주의 미주 수출이 이루어져 자부심이 크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동진강변서 양미역취 제거

정읍시는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5월 22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8일 동진강변에서 대규모 양미역취 제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진강환경·복지협의회 30명과 자연보호중앙연맹 정읍시협의회 35명이 참석했다.

양미역취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로, 북아메리카로 국내로 유입돼 토종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분포하며 특히 전라도 지역에 집중분포돼 있는데, 하천 정비사업 이후 동진강과 만경강 일대에 대규모 군락 분포하고 있다. 양미역취는 뿌리에서 독성물질을 내뿜으며 다른 식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타감작용(他感作用)'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미역취는 9~10월에 노란꽃의 개화기를 거친 뒤 씨앗을 뿌린다.

특히 뿌리를 내린 양미역취는 100년 가량 유지되며 번식력이 강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井邑)은 우물의 고장

시, 지역 명칭 상징 '우물' 보존 나서… 정해마을 등 4곳 시 관리대상 우물 지정

정읍시가 지역 명칭의 상징인 우물 보존에 나선다.

시는 '우물 정', '고을 읍'이라는 지역 명칭의 근원인 '우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서는 지역 명칭의 상징인 우물을 관리해 보존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3년 9월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초 전수조사를 통해 300개가 넘는 우물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 중 30개를 1차 선별한 이후 지난 16일 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해마을, 덕천 가정마을, 산외 여우치 빈시암, 산외 외목마을(일명 선녀 약수) 우물 4곳을 시 관리대상 우물로 지정했다.

덕천 가정마을 우물 〈사진=정읍시청 제공〉

정해마을 우물은 시암바다라는 뜻으로, 정읍사문화제 채수의식이 치러지고 있고, 덕천 가정마을 우물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마신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외 여우치 빈시암은 동진강의 발원지라는 점, 산외 외목마을 우물은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는 전설인 일명 '선녀약수'로 널리 알려졌으며 약수의 효능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바로 옆 마을인 내목마을의 솟대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가치도 더해졌다.

시 관계자는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 명칭에 우물 정자가 들어가는 정읍의 상징을 보존해 우물이 가진 역사와 특징을 알리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20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학교지원단' 단원 위촉식 및 회의를 열었다.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지원단 위촉식

학교지원단 41개교 교장단 구성

고창군이 20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학교지원단' 단원 위촉식 및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학교지원단 41개교 교장단으로 구성된 학교지원단 4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지원단은 청소년안전망의 일부로서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41개교 학교의 장으로 구성됐다.

학교지원단장인 윤재성 대아초등학교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단장이 선출되었고,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더 많이, 발 빠르게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고창군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희망찬 미래를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상담과 교육,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미니수박' '시설복숭아' 첫 출하

심덕섭 고창군수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적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농산물 소비시장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미니수박과 복숭아 재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미니수박과 시설복숭아 첫 출하 현장을 찾아 일손을 거들고, '고창미니수박연합회(회장 한동석)'와 '복숭아연구회(회장 송재천)'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의 미니수박은 고창미니수박연합회 주축으로 100명의 회원이 중·소과종 수박인 블랙망고수박과 블랙보스수박, 애플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약 90ha로 2023년 기준 전국 면적의 15%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올해는 고창황토배기유통과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을 통해 출하할 예정이다.

고창군의 복숭아는 47농가가 16.8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고품질 복숭아 생산 및 공동출하를 통한 고창 복숭아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복숭아연구회를 창립했다. 복숭아 품질 고급화와 조기출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설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농산물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소비트렌드에 맞춰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좋은 농산물을 안겨드리는 것을 목표로, 농업인과 함께 발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현안 사업 정부예산 반영"

이학수 시장은 20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를 갖고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소관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농기계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라"며 "특히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영농철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적기 영농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집중호우철을 앞두고 있어 재해와 악취가 우려된다"며 "상습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배출 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예술회관, 태권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부안군이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태권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를 오는 25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공연한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소재에 태권도와 국악 등을 접목해 탄생한 창작 태권소리극이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끌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인물들의 진실과 꿈의 의미를 그린 역사 판타지극으로서 국악을 기반으로 태권도의 각종 품새와 겨루기 동작, 고난이도 격파와 함께 다양한 특수조명, 미디어아트 등을 덧입혀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공연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자체 콘텐츠를 개발한 시즌3 작품이며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선수들과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 등 지역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성화된 브랜드 공연으로 제작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